

싸움

우리 바로 옆집에 셋방을 빌려가지고 사는 젊은 두 내외가 있다. 사내는 30여 세나 되어 보이는 파식장수요, 아내는 이제 17, 8세밖에는 안 되어 보이는 애송이다. 그런데 이 두 젊은 내외가 밤중이나, 새벽이나, 한낮에나, 가리지 않고 거의 날마다 싸움을 한다. 싸움을 해도 이웃 모르게 말마디나 주고 받고 토닥토닥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온 동리가 다 알도록 패고, 치고, 방성통곡을 하고,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구(口)투쟁을 하는 것이다.

그럴 때면 내 아내는 자기가 맞거나 하는 것처럼 「에이 저런 짐승 같은 사내하고 어찌 살아」하고 까닭없이 화를 낸다. 그러면 나는 어린 아이를 함부로 치고 받고 하는 그 사내가 껄쩍하지 않은 게 아니나, 남의 싸움에 까닭없이 화증을 내는 것이 우스워 「계집이 너무 종알종알하는 계지」하고 빈정대어 주다가 우리까지 싸움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젊은 내외 싸움에 보기 드문 특징이 하나 있다. 그것은 그렇게 「죽여라 죽여라」하며 맹렬히 싸우다가도 단 오 분이 못되어 「하하하」「허허허」하고 언제 화내고 분해하고 하던 티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는 다시없이 명랑하고 평화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연해 「아이 여보

오」「왜 그러우」 이런 정다운 정경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번 싸우면 이틀씩 풀어지지 않는 우리도 하도 어이가 없어 「허허」웃고는 마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하도 그들 싸움하는 것이 이상해서 오늘 아침 행낭어멈에게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싸우는 것이냐고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들의 싸움의 원인인즉 이러한 것들이었다.

그저께 아침 싸움은 두 내외 앉아 밥을 먹다 남은 밥을 둘이 서로 사양하느라고,

「요거 당신이 자시우.」

「아니 당신이 먹우.」

「먹으라면 얼른 먹어버려요. 설이지 하께.」

「싫어. 나는 배불러.」

「나도 배불러요.」

「그럼 조금만 하지, 많이 하니까 이렇게 남지.」

「많이 하긴 누가 많이 해요. 탄때하고 똑같이 했구만. 내가 배를 곱아가면서라도 자기 배를 불러주려니까.」

「나는 이년아, 그럼 배부른 줄 아니.」

「그럼 왜 그래.」

「이년이.」

「이년이 어째.」

「이년을 죽여버릴라.」

「죽여.」

그래서 남편이 아내 머리채를 휘어 잡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저께는 남편이 벌이 나갔다가 걸어 준다고 한 술을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제가 걸어 놓았더니 남편이 돌아와,

「왜 술은 걸었어.」

하고 화증을 벌컥 냈다.

「잘만 걸었으면 고만이지.」

「누가 잘못 걸었대서 그래.」

「그럼 왜 그래.」

「추운데 떨고 걸었으니 말이지.」

「당신은 걸을 때 안 추우.」

「누가 안 춥데 이년아.」

「왜 남보고 이년 저년이야.」

「이년의 버르쟁이를.」

이래서 또 아내 엉덩이를 가로챈 것이었다.

그리고 또 어제 저녁 싸움은 별이가 적어서 풀이 죽어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그런 줄을 뻔히 알면서도,

「오늘은 얼굴을 보니 돈벌이 많이 했구려.」

하고 빈정대다가 다짜고짜로 등줄기를 얻어맞은 것이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행낭어멈은 자지러지게 한번 웃고 이렇게 덧붙여 말을 맺었다.

「아 글썸 그만 죽어버리든지, 달아나 버리든지 하지 왜 그런 짐승 같은 사내놈하고 사느냐」고 했더니 도리어 해해 웃으면서 그래도 속은 좋다고 그러겠지요. 그렇게 때려놓고는 「내가 당신이 어디 미워 그랬오. 잘못했오」 그런대요. 그러면 그만 안 웃으려고 해도 우스워서 웃어버린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들의 싸움은 결코 사랑이 두텁지 않다거나 미워해서 하는 싸움이 아니었다.

그쪄저게 싸움은 서로 배가 고프는 것을 참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

내를 배부르게 해주려다가 한 싸움이요, 그저께 싸움은 남편이 어린 아
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추위를 무릅쓰고 일을 했다고 해서 애처로워하
는 마음이 넘쳐 화가 되어 싸운 것이요, 어제 싸움은 남편이 자기를 한
번 친 다음에는 아무리 오래 갈 화증이라도 곧 풀어져 버리는 것을 아
는 아내가 남편의 화증을 풀어 히히 웃기려고 일부러 화증과 복을 얻어
맞아 준 것이었다.

우리의 눈에 그렇게도 악착스럽게 보이던 그들 싸움이 그들에게 있
어서는 사랑싸움이었으니 그들의 누가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다 싸운
우리의 정말 싸움이야말로 기막힌 웃음거리였다.

지금도 또 그 여인네의 찢어지는 듯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
나 전과 같이 비명으로는 들리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그들 때문
에 싸움을 하지 않게 되었다.

《여성》, 3권 2호, 1938. 2. 1)